

# 하늘보다 더 큰 급진적 깨어남에 대해

| 비키 우드야드 | 류래현 옮김 |

삶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존재의 본질인 '지금 있음'의 순간을 살아가는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편집자 주).



비키 우드야드는 현실에 대해 쓴다. 그녀는 사실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는 방법으로 아픔과 고통을 넘어서 자리를 보여준다. 그녀의 글은 솔직함, 유머, 문학적 기교를 통해 고통을 넘어서게 해주는 마법 같은 힘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이 글에서 비키는 피터와 주고받은 서신을 통해 그러한 힘을 보여 주고 있다. 피터는 현재 내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존재이다. 나는 피터를 개인적으로 몰랐지만 그의 웹사이트 sentient.org 는 내가 nonduality.com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이 글의 내용은 이렇다. 두 사람이 슬픔의 모든 형체와 그림자를 대면한다. 그리고 슬픔 너머를, 곧 실재를 본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기억될 환상적인 파트너로 등장한다. 우리 모두 고통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들과 함께 하게 된다. 우리는 비키이고, 또 피터이다. 그리고 로리이고, 밥이고, 베씨이고 세 마리 고양이이며 지금 막 태어나는 새끼이기도 하다. 이런 어느 순간이 오면 독자는 그 모두를 웃어 넘겨야 할 것이다. 정말 중요하게 뭔지 알아야 할 것이다. 피터와 비키는 그렇게 한다. 나도 그랬다. 독자도 그럴 것이다.

이 글은 다름 아닌 ‘공동체’이다. 예전 비이원론 살롱처럼 이 글은 독자가 안전한 상태로 있을 수 없는 공동체이다. 유감이지만 어쩔 수 없다. 독자는 고통과 슬픔을 마주해야 한다. 당신을 보호해 주는 것이 이 글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비키의 고백을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어떤 면에선 슬픔이야말로 진정한 구루입니다. 고통이 자아의 찌꺼기를 불살라 버리면 성스러운 재만이 남습니다.”

제리 카츠Jerry Katz

## 피터를 위해

나는 당신을 저 너머에서 만나겠지요  
하나 당신을 어떻게 알아볼까요?  
당신은 삶 속으로 사라져  
그 누구도 아니게 되었는데, 하하.  
어쩌면 당신을 기억하면  
하늘의 푸른빛이 떠오르고,  
우리가 나눴던 대화의 향취와,  
그 불 속으로 우리가 사라져 버린 기억이  
떠오를 테죠.

## 피터

삶에 짓눌려 가던 순간에, 피터라는 사람과 온라인에서 친구가 되었다. 그는 sentient.org라는 영성과 관련된 최초의 사이트 중 하나를 만든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성이 뭔지, 어디 사는지도 말해주지 않았다. 피터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었고, 그는 그 편을 더 좋아했다.

더없이 단순했던 피터의 말들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커다란 의미로 다가오리라는 것을 당시에는 거의 알지 못했다. 피터가 언제 죽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는 자꾸 약해졌고 나나 다른 친구들에게 편지 쓰는 것을 갈수록 힘들어했다.

이제 그는 이 글에서 빛을 발할 것이다. 피터와 나의 이야기에 온 것을 환영한다.

## 이야기의 시작

당신은 하늘입니다. 그 밖의 모든 것은 그저 날씨일 뿐이지요.

페마 초드론

남편이 죽어가던 무렵 나는 잇따른 뇌졸중으로 시달리던 피터라는 사람과 이메일로 서신 교환을 시작했다. 그는 잘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하늘보다 더 큰”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뇌졸중이 발병한 이후 그는 자신을 묘사하던 형용사들이 더 이상 맞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언젠가 “전 잘생겼고, 남자 중의 남자죠”라고 말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2년 사이에 그는 복도를 지나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불가능해진 자신을 발견했다. 사람들이 새로 그를 묘사하는 말들은 그다지 좋은 말이 아니었다. “좋지 못한 예후, 뇌졸중 희생자, 무능력자” 같은 말들이 그를 따라다녔다.

피터는 가까스로 생명을 부지하고 있었고 내 남편은 죽어가고 있었다. 피터나 나나 개념 때문에 소비할 시간이 없었다. 우리 모두 오랫동안 안 수도를 해왔지만 단순함 속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쓸데없이 복잡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피하기로 했다.

피터는 영적인 스승들을 찾아가 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도움이 안 됐죠” 그는 말했다. “간단히 말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단 한가지 일을 했다. 그는 알렉스라는 이름의 작은 고양이를 가슴에 안고 햇볕 아래 앉았다. 고양이가 가르릉거리는 소리는 간호진이 줄 수 없는 자연의 치유력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개똥지빠귀가 풀밭을 가로지르는 것을 바라봤다. 그저 바라보았다. 그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감사를 느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살아있는 경험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거기에 형용사를 붙일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나도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에서 내 가죽 의자에 앉아 봤다. 그리고 나라고 내가 생각하거나 느끼던 것이 내가 아님을 기억해냈다. 나는 그냥 존재했다.

아침이 끝날 무렵 휴지통에는 나를 묘사하는 말이 한가득 쌓였다. 나는 그 하나하나보다 더 컸다. 나는 이름 붙여지거나 묘사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컸다. 피터는 이제 우리 곁에 없지만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 안에 살아 있다. 그가 어떻게 하고 간 것일까? 그가 뭘 어떻게 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그 순간의 기쁨은 느껴진다. “고통이 오면 소리를 치죠. 넘어지면 ‘하하’ 웃습니다” 그는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았다. ‘나는 있다’라는 그 자신의 얇은 자꾸 커져서 뇌졸중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의 경력은 한때 화려했지만 뇌졸중에 걸리고 나서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는 누가 친구였는지를 기억해내지 못했다. 그는 그걸 바꿀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분명 달랐다. 이미 보았듯, 우리 존재의 본질인 ‘나는 있다’라는 사실은 파괴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무력한 상태가 되어서야 배운다는 것은 안된 일이다. 피터의 경우, 그는 분리된 자아라는 환상을 꿰뚫어보았다. 그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 자신은 더 크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우리들로서는 알기 힘든 기쁨을 느꼈던 것이다.

우리 둘 모두 삶의 핵심을 살고 있었다. 육체적 능력이 몇 차례의 뇌졸중에 의해 제한되기는 했지만, 그는 나에게 사랑 위에서만 존속하는 현실의 기록을 남겨줬다. 그는 도그마는 치워버리고 숨 한 모금, 비틀 거리는 한 발자국의 단순함을 즐겼다.

피터가 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한 마디로 말해보자면, 그는 나에게 그 자신을 줬다고 말하고 싶다. 그것은 나를 완전히 열어 버릴 정도로 강력했다. 내면이 외면으로 변했다든지, 등등. 그는 고양이 애기로 한턱 쏘고, 나는 보답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보살피는 것이 어떤지를 이야기해줬다. 이런 오가는 얘기가 우울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 대화들은 에테르처럼 정묘하고, 공기처럼 묘사할 수 없으며, 꼭 필요한 뭔가로 빚어진 것이었다.

“가치 있는 것이라면 당신에게 알려 주죠”, 그가 말했다. 웃음과 함께 주어지는, 온화한 친구의 심원한 지혜가 담긴 말을 읽을 때마다, 나는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곤 한다.

집 주변을 산책할 때 나는 개똥지빠귀가 풀밭을 가로지는 것을 보곤 한다. 내 가슴은 피터가 준 삶에 열려 있다. 나는 어떤 것보다 크다. 나는 하늘보다 크다.

## 나는 어디에 서있는가?

작가라면 모름지기 쥐뿔도 모른다는 자세여야 한다.

레너드 코헨

편집자가 질문했다.

“영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혼이라는 건 또 무슨 뜻인가요?”

나는 인용구로 답을 대신했다.

내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자는 누구인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질문이 멈추질 않네. ~ 루미

질문은 평생 계속되어야 한다. 마치 신이 듣고 있는 것처럼 그 질문들을 통해 살아야 한다.

특히 작가와 시인은 이 질문들을 암호화해서 그것이 살아나도록 하는 법을 알고 있다. 예컨대, 이 책은 영이나 혼을 이야기하고 있다. 피터가 그의 진정한 본성이 사랑임을 알았다면 나에게는 의식과 사랑이 하나이며, 같은 것이다.

나는 행간을 새기며 피터의 말을 들었다. 그가 하늘보다 크다고 자신을 묘사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었다. 그가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것은 영혼의 얇이었다. 나 혼자만 그의 깨달음에서 덕을 보는 것은 아니었다.

내 글이 효과가 있다면, 말이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안을 주는 곳으로 독자를 데려다 줄 것이다. 나는 말 너머로 가기 위해 말을 사용한다. 하지만 좋은 작가라면 모두 그렇게 하지 않는가? 나도 그러길 바란다.

밥이 살아서 내 말을 듣고 있는 양 내가 말한다고 해서, 그걸 누가 틀렸다고 증명할 것인가? 이것은 손실에 대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누군가가 죽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더 높은 차원으로 가져가, 더 고상한 목적을 위해 그것을 심는다. 그 결과로 사랑의 영원한 부분이 자라난다. 그렇다, 거기엔 눈물이 있다. 그것으로 적셔진 땅에는 사랑의 꽃을 심을 수 있다. 그럼으로써 물리적 실체 없이도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된다. 피터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지만, 그의 영이 함께 하고 있다...

## 우리는 대체 누구인가?

나는 앉아서, 작은 관에 누여진 딸의 시신을 보고 있었지.

그건 딸이 아니었네.

나는 뜯눈으로 밤새우며 흐느꼈지

그건 내가 아니었네.

아들은 내성적으로 변했지.

그건 그가 아니었네.

남편은 침묵으로 빠져 들었지.

그건 그가 아니었네.

그럼 그건 누군가?

나는 앉아서 딸에 대한 글을 쓰지.

그건 내가 아니었네.

남편은 일중독으로 변했지.

그건 그가 아니었네.

아들은 냉담해졌지.

그건 그가 아니었네.

남편은 병에 걸렸지.

그건 그가 아니었네.

나는 화가 났어.

그건 내가 아니었네.



나는 앉아서, 관 속에 누여진 남편의 시신을 보고 있었지.

그건 그가 아니었네.

아들과 나는 서로에게 강경했지.

그건 우리가 아니었네.

어떻게도 손쓸 방법이 없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일 때 우리는 누구인가?

그건 우리가 아니네.

천사처럼, 우리가 놀라운 위엄과 함께

불가능한 현실로 날아오를 때 우리는 누구인가? 그건 우리가 아니네.

강력한 성채처럼 어둠에 맞서고 있는

우리는 누구인가?

그건 우리가 아니네.

사랑을 하며 절망감 밖에

느껴지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완전히 무감각해진 채 마음속 요새 속으로

도망쳐 숨어버리는 우리는 누구인가.

슬픔의 바위를 멀리 치워버리고 말하길,

“이리 나와요, 더 이상 빛을 부인하지 말아요” 라고 말하는,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 피터와의 대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나는 그저 나의 상냥한 작은 고양이와 햇볕 아래에서 쉬고 놀기만 했어요.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피터

피터의 말은 나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리고 그의 허가를 얻어, 그 대화 중 일부를 아래에 소개한다.

피터 : 우리 삶이라는 것은 정말 짧아요. 눈 깜짝할 순간에 가버리고 말아요. 당신과 남편이 함께 걷고 있는 곳이 설령 지옥일지라도,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워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기쁨 속에서든 고통 속에서든, 이 놀라운 삶은 정말 눈부셔요.

비키 : 마치 아픈 사람처럼 말하는군요.

피터 : 그건 내 의사들이 하는 얘기에요. 전 그들을 믿지 않아요. 내 작은 고양이는 내일이나 어제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죠. 어떨 땐 다쳐서 위안을 받고 싶어하고, 어떨 땐 피곤해서 편히 누워서 저를 향해 미소 지어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라마나 마하리쉬는 락쉬미(그가 좋아하던 소)를 많이 사랑했을 거예요. 락쉬미나 내 작은 고양이는 아무 데도 가지 않죠.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요. 정말 큰 축복이죠.

휴식은 정말 과소평가되어 있어요. 이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 시절 이후 정말 제대로 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행복이 없을 거

예요. 앉아서 가르침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찾는 것은 약간의 휴식인 것 같아요. 동물들이 훨씬 더 영리하죠. 피곤할 때면 그들은 쉬어요. 그게 분별 있는 삶이죠!

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고통이란 눈을 뜨게 해주는 어떤 것이예요. 몇 년간 지속되는 고통은 신념체계의 어리석음을 날려버리고 대신 삶, 신, 진실이라고 부르는 것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몸이 무너지고 있을 때 개입을 시도하는 것은 시간 낭비예요.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진짜 심장의 박동만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비키 : 밥이 진단을 받은 직후 저는 파멜라 월슨에게 편지를 썼어요. 너무 슬프고 불안해서 그녀의 말 하나에 매달렸어요. “쉬고 황홀해하라, 그밖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그녀는 말했죠.

피터 : 파멜라가 말하는 대상은 파킨슨씨 병으로 오랫동안 서서히 죽어간 그의 스승(로버트 애덤스)이었죠. 그가 죽기 1년 전에 그를 만났어요. 그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고 끊임없이 고개를 저어댔지만, 그의 내면의 평화와 아름다움은 불빛처럼 빛났어요. 몸이 쇠약해지는 중에도 그는 그 자신 안에서 깊이 쉬었어요. 정말 아름답죠.

제 경험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잘 하는 것이 고통받기인 것 같아요. 상당수의 고통은 강한 감정을 가로막는 데서 오죠. 제 경험으로는 아무것도 도움이 안돼요. 정말 심각한 병일 경우 빠져나갈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나무에서 반짝이는 햇빛을 즐기며 쉬는 것이죠. 그 외에는 정

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뭔가 잃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 고독이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 되었어요. 전 외롭다고 느끼지 않아요. 고립되었거나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죠. 이 외로움은 그 보다는, 아주 평화로운 무력감이에요. 저 혹은 다른 사람이 그 밖에 할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고양이를 품에 안고 미소 지으며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사는 거죠.

타이핑 중인데 고양이가 저녁을 달라고 하네요. 고양이는 현재에 머무는 능력이 탁월한데 저녁식사 시간에는 특히 더 그렇지요. 그 작은 발가락에 있는 지혜가 소위 99.999%의 스승들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얼마나 잘생겼는지! 라마나만이 그런 사랑스런 얼굴을 가졌던 것 같아요.

질병(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된 모든 것)은 저나 다른 사람의 통제 범위 너머에 있어요. 후우, 나는 그 말에 익숙하지 않아요.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는 말하자면 계획하기와 걱정하기(마음이 설계된 목적)는 물론 계속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래서 어쨌다는 거죠? 마음은 계속 고통을 받겠지만, 그건 내가 아녘요, 그러니 마음이 원한다면 고통을 받아야죠. 내가 걱정할 바가 아니에요. 어쨌든 그걸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비키 : 당신에게 얼마나 에너지가 적은지 이해해요. 그 문제에 대해 저에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냥 모든 것을 관두고 당신의 고양이처럼 되겠어요.

피터 : 전 이 고양이 친구가 다른 모든 치유사들을 합친 것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동정심은 말할 것도 없고요.

비키 : 구루는 의사만큼이나 나쁠 수 있죠.

피터 : 그래요. 왜들 가르치려고 하는지(나누는 것과 정반대 의미로) 저에게는 정말 미스터리예요. 어떤 사람은 경험이 있고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간판을 내걸고는 서비스를 광고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좌절하고 겁먹은 사람들이 와서 잔뜩 돈을 투자하죠. 그리고 나름대로 경험을 하고는 길거리에 자신의 간판을 내거는 거죠. 이걸 보이지 않는 감옥 벽과 다를 바가 없어요.

구루와 학생, 깨어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의 차이를 느껴온 지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내 경험으로는 그런 말들은 사실 아무 의미도 없어요. 고양이를 품에 안고 누워 따뜻한 햇볕을 즐기는 데 방해만 될 뿐입니다.

이쯤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신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양이, 햇볕, 그리고 새로운 친구 등을 통해서.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목소리를 듣는 것뿐입니다.(끝) 

- 이 글은 《Bigger Than The Sky》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비키 우드야드** Vicky Woodyard |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작가. 《구멍 뚫린 삶 : 빛은 그리로 들어온다 Life With a Hole in It : That's How the Light Gets In》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2004년에 남편 밥을 다발성 골수종으로 떠나보냈고 외동딸은 일곱살 때 소아암으로 세상을 떠다.

그렇게 해서 비키는 정직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길을 글로 풀어내기 시작했고 삶의 가치에 대해 독자의 마음을 열어준다. 비키의 글은 엘사 조이 배일리가 말한 것처럼 당신의 자리를 다시금 발견하게 도와주는 북마크와 같다. 빗장을 열어젖히고, 죽음과 영생을 동시에 일깨운다. “깨어있음은 곧 우리 자신이며 고통으로 가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역자 | **류래현** | 〈지금여기〉번역위원. 서울대학교 작곡과 졸업 후 현재는 프랑스에 머물며 파리 고등사범음악원(ENMP)에서 영화음악, 오케스트레이션, 작곡을 공부하고 있다.